

## 하천과 녹색댐

김기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우리나라의 봄 가뭄은 아주 심각하다. 가을과 겨울에 가뭄이 심하면 저장된 물이 없어 그 다음 해에 농가도 힘들고 전국토가 봄을 맞아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토는 봄 가뭄에 아주 극심한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녹색구매세계대회라는 것도 열려 미국의 엘 고어 전 부통령까지 내한했다고 한다. 친환경, 녹색성장, 자연보호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물을 아끼고 잘 관리하자는 노력이 일고 있어서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UN에서 공식 인정한 물 부족 국가 아닌가.

어쨌거나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 880mm보다 많은 1,200mm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반도에 내린 비나 눈 대부분은 바다로 흐르거나 대기 중으로 증발하지만, 육지에 머무는 물의 양만으로도 우리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린다. 그 이유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후조건과 지형조건 때문에 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2 이상이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지형적으로 산의 계곡부가 짧고 가파르기 때문에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하자며 번번이 들고 나오는 대안이 인공댐이다. 물론 댐도 충분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인공댐으로부터 지속적인 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공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숲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숲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물은 계곡과 강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근원이다. 365일 한강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유는 바로 북한강과 남한강의 지류인 금강산과 태백산의 숲이 건강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크기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에서는 토양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숲 토양이 잘 발달할수록 물의 저장량이 많아져 홍수나 가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토양 발달이 잘 이루어진 숲 1㎡는 약 2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철 토양 속의 물은 팽창하여 외부로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계곡으로 흘러 내려온다. 기온이 낮고 대기 중의 습도가 높은 날의 숲의 토양은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계곡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의 양을 조절한다. 이것이 녹색댐이다.

숲을 가꾸고 산을 잘 일구는 노력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국토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숲이 바로 녹색댐이며, 녹색댐이야말로 우리 하천을 가장 효율성 있게 관리 운영하는 방안일 것이다.

한민족이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국토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는 중요한 길은 바로 이 하천을 녹색댐으로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말자.